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변함없는 자성의 땅

가장 숭고 이 지역을 굳게 지켜라.

이곳은 변함이 없는 영토이나라.

땅 한 조각을 사서 깨끗하게 정돈하고, 집을 짓고, 경작을 하는 등의 행위가 미래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치가 있는 땅은 모든 사물의 궁극적이고 불변하는 본성, 원시 청정이라는 요새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방법은 은둔 명상을 하며 '대원만'에서 끝나는 각기 다른 수행 단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단계를 완전히 성취하고나면, 나머지 인생에서, 사후에, 혹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에서 그 상태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용감하게 나아가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편안한 죽음' 원력, 호스피스 병원으로

정토관자재회, 자재병원 건립... 한국 최초 완화의료 병원

1997년 가톨릭의 한 호스피스 시설. 평생 선방에서 정진한 수좌 스님 한 분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었다. 호스피스로 활동하는 한 비구니 스님만이 그 쓸쓸한 임종을 지켰다. 수좌 스님은 가쁜 숨을 쉬며 비구니 스님에게 마지막 당부했다. "능행 스님, 편히 죽을 수 있는 병원 하나 지어주세요."

비구 스님의 부탁은 능행 스님의 마음에 비수가 돼 꽂혔고, 곧 원력이 됐다. 그 후 능행 스님은 탁발을 시작했고, 1999년 충북 청원에 정토마을이라는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이 불교계 최초로 들어섰다. 이후 10여년, 능행 스님은 한국 최초의 호스피스 전문병원 자재병원을 건립하는 패기를 이뤄냈다.

울산에 들어서는 자재병원은 말 그대로 죽음을 앞둔 난치병 중증 환자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현재 일부 대학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을 두고 있고, 관련 전문 의원들은 있지만 병원이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자재

병원은 1층에 완화의료 및 희귀난치성 불치병 병동과 약국, 중환자실 등을 운영한다. 2층에는 각종 암 질환 등 성인병중환자 재활병동이, 3층은 승가요양 전문병동과 통합의학센터가, 지하 1층에는 임상병

난치환자 죽음 맞을 병동부터

외래·재활 진료공간 등 들어서

스님들 치료위한 전용 병동도

마무리 공사비 20억원 소요

사부대중 동참·후원 '절실'

리실과 교육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증축할 예정인 4층은 법당과 요가명상실이 들어선다.

특히 승가요양 전문병동은 스님들이 안정적 치료를 보장해 승가공동체의 구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



울산 정토마을 자재병원 모습. 능행 스님의 원력으로 한국 최초 호스피스 병원이 탄생하게 됐다.

고 있다. 정토마을 자재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은 "죽음이란 모든 존재들에게 가장 평등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난치병을 앓다가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었다"고 건립 취지를 설명했다.

병원의 완공률은 90%로 개원은 9월까지 다음달 초부터 환자를 받는다. 정토마을과 달리 자재병원은 환자들이 치료비를 내야 하지만, 차상위계층의 환자에게는 무료로 운영할 방침이다.

자재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로 재정 문제다. 당장 마무리 공사와 의료 기자재를 들여오기 위한 20억 원의 기금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토마을 자재병원은 1인 1만원 3만 후원자 가족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능행 스님은 "자재병원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리가 돼주고 싶다"며 "첫 호스피스 전문 병원에 사부대중의 깊은 관심과 후원을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총화종 수진사 복지문화교육전승관 낙성

4월 23일 기념법회... 2300평에 2개동 불사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사진) 총본산 수진사가 4년 동안 불사한 복지문화교육전승관이 완공돼 4월 23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에서 낙성법회'를 연다.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복지문화교육전승관은 총건평 2300평 위에 2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대웅전이 있는 주 건물은 300평의 대지에 문화·교리 강좌, 외국인 쉼터 등으로 활용된다. 이곳 맨 위층인 지상 4층에는 대웅전이 들어섰다. 또 다른 건물은 120평

의 대지에 유치원 및 요양시설이 있다.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2000년 초부터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사 동남아 불교 국가를 두루 답사하며 템플스테이 체험공간, 유치원, 노인요양원 등 복지문화 종합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온게 이번 불사를 시작한 계기였다"며 "특히 이번 불사 중 108평 규모의 대웅전은 내부 공간에 기둥 없이 건축됐을 만큼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전 뒤편에 만들어진 연화세계는 600평 대지에 11미터 길이의 와불(열반상), 원통문과 108계단, 10대 제자와 33관을 보살을 모셨고, 뒤편에는 팔상성도, 16나한, 산수화를 배열한 돌벽공과 21미터 높이의 9층탑도 세우는 등 공원 형식의 메메드급 불교 타운을 조성했다. 김주일 기자

불교방송사상 대기발령 무효 12일 이사회 무산...19일 재개 조계종이사 "이사장 비위 무"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이 이사회 동의없이 이채원 사장을 대기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 12일 이채원 사장이 제기한 '인사발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사회 동의 없이 사장을 대기발령한 인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4월 4일자 사장직 무대행 발령을 받았던 상무 선문 스님이 내린 인사발령은 원안무효로 돌아갔다.

4월 12일 예정된 불교방송 이사회도 21명 이사 중 10명만이 참석, 재적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날 참석 이사들은 이사회가 성원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 19일 이사회는 모두 참석해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불교방송 이사회는 이사장 영담 스님이 소집한 4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소속 불교방송 이사 스님 6명은 4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에 회자되는 영담 스님의 비위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지컬 원효는 불교를 알리려고 시도하다가 일어난 행정적 실수"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혜숙 기자



2014 인천AG 성공기원 수록재 봉행

4월 12일 화엄종 약사사서

인천수륙재보존회와 인천시는 4월 12일 인천 만월산 약사사에서 제9회 인천수륙재(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5호)를 거행했다.

대한불교 화엄종 약사사, 대한불교 삼계종,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인천불교총연합회, 인천불교회가 공동후원한 인천수륙재에는 예년보

다 많은 700여명이 참석해 2014년 인천아시아인 게임의 성공을 기원했다. 수록재에서는 인천수륙재 보유자이자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인 일초 스님이 보존회 스님들과 수록재를 직접 시연했다. 일초 스님은 "수록재는 민심화합과 국가안정을 기원하기 위해 열렸다"며 "수록재를 통해 2014아시아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2013 양주 회암사 삼대화상문화제

삼대화상의 수행성지, 양주 회암사에서 울리는 장엄한 삼대화상 다례재, 다양한 문화체험, 감동적인 음악예술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삼대화상다례재 (10:00~13:00)



회암사를 중건하고 중흥한 조계종의 증명법사로 임제종의 법맥을 이은 삼대화상의 얼을 기리는 다례재(茶禮齋)입니다. 앞으로 매년 열릴 다례재는 '삼대화상문화제'의 중요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부대행사 (10:30~20:30)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보시행을 실천할 수 있는 열린마당으로 꾸몄습니다.

- 다도(茶道) 시연과 시음회(試飲會)
- '회암사 문화재를 찾아라'(견기대회)
- 사찰음식 시식, 바루공양 체험
- 연등과 단청소품 만들기
- 기와무늬 탁본과 나용선사 선시 인출 체험
- 토우(흙인형) 만들기
- 소외받는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삼백석' 쌓기
- 지역 어른과 이주 근로자, 다문화가정 무료 진료
- 회암장터(지역특산물, 먹거리, 도서, 용품 등) 운영



삼대화상음악예술제 (18:00~20:30)

상생과 소통의 길을 여는 음악예술제. 클래식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지는 고품격 화합의 한마당.

- 공식 행사 : 삼대화상 장학금과 '자비의 쌀 삼백석' 전달
- 여는 마당 : 법고(法鼓) 시연
- 어울림 한마당 : 양주시립합창단, 회암사연합합창단, '락음국악단(퓨전 국악그룹)' 공연
- 초청 공연 : 범능스님, 안치환, 웅산, 송대관

행운권 추첨과 두레패의 심명나는 한마당



주최 : 대한불교 조계종 회암사 · 주관 : 양주 회암사 삼대화상문화제 | 조직위원회 T. 031-866-0356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속의 경기도, Yangju 양주시,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중앙신도회, 한국관광공사, 불교TV, BBS, 불교방송, 불교신문